

Contents

- 01 권두언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만들어지는 생태도시
- 02 이달의 논단
① 환경생태도시 구축 성공요인에 관한 단상
② 환경친화적인 창조도시, 꾸리찌바
- 06 자치단체 탐방 - 전북 순창
타임지가 선정한 장수의 마을, 순창
- 08 자치단체 우수사례
경기 오산-오산천 생태하천사업과
열린 환경정책의 추진
- 10 도시통계
생태환경도시 도시통계
- 13 지방자치단체 동향(8월)
- 14 연구원동정-9월 연구원 소식
- 15 알림마당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① "지역일자리 창출의 미래 전략" 번역서 발간
②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인재개발 교육프로그램 안내

KRILA_2011

2011년 9월호

제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 통권 제26호

발행인 한표환

편집인 뉴스레터 위원회

발행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락처 TEL. 02-3488-7300
FAX. 02-3488-7309

디자인 인터미디어 성림디앤피

※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무료)

e-mail :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에서 Newsletter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권두언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만들어지는 생태도시



박철휘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도시환경학회 회장
대한환경공학회 고문
하이서울녹색성장포럼 공동대표

현시점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의 생태도시를 주제로 한 소식지 발간에 즈음하여 권두사를 쓰게 되어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시대는 인간과 자연의 상생, 도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어 지속 가능한 생명 공동체로써 더불어 생존하고 균형된 지구생태계의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더욱이 현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여 세계 속의 선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등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진국들의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범국가적 전략으로 채택하여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을 건설하려고 녹색성장을 선언하였습니다. 녹색성

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며,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 개선과 생활의 녹색혁명을 중점개념으로 하여 저탄소형 국토개발, 생태 공간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구나 폐자원,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등을 통한 녹색마을 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에서 친환경 녹색도시와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 생활환경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에너지로 재활용하여 폐기물 무배출 시스템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생태도시의 완성입니다.

녹색생활 확산, 여가 속 녹색생활을 영위하는 도시 녹색 공간, 도시빌딩 녹화,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녹색공원 조성, 도시민의 정서순환 등을 포함한 자연과 인위적으로 가까워지게 계획하는 도시, 인간과 생태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생물다양성, 자연 순환형,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형태를 의미하여, 이는 우리 도시의 현 주소이며 이상도시입니다.

지방행정 연구원에서는 국가의 중요 정책들이 지자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항구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더욱 더 개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생태도시를 주제로 한 소식지의 내용들이 우리나라 생태도시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달의 논단 _ ①

환경생태도시 구축 성공요인에 관한 단상



서순복
조선대 교수

21세기 지구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하나 밖에 없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소진되었다’는 주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동안 지구는 인구증가와 산업화 및 도시화로 자연자원의 대량 소모와 훼손 등으

로 그 물리적 상태나 인류 생활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환경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한 시대적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생태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정부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생태도시의 계획과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화석 에너지를 대폭 감축하고 녹색 성장을 위해서 산업구조가 에너지절약형 탈화석연료형 산업으로 개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자원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환경오염의 주요 배출원 중의 하나인 도시가 친환경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생태도시(eco city)가 되어야,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하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와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현대 도시가 직면하는 과제는 아주 다양하다. 그러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문제에 주안점을 두는가에 따라 도시발전 패러다임이 달라진다. 미래학의 관점에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유엔미래니엄 프로젝트를 비롯한 미래학자들이

꼽고 있는 과제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 과학기술, 에너지, 세계화와 글로벌 이슈, 민주주의와 다양성, 생태환경, 건강과 복지, 윤리와 가치, 도시화와 지역문제, 평화와 전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계획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엔인간정주 위원회는 인구구조,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세계화와 재구조화, 지방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새로운 공간적 형태와 과정, 도시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동반하는 제도적 도전 등을 현대 도시가 직면하는 도전이라고 보고 있다(UN-HABITAT, 2009).

도시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지향점들은 한마디로 세련된 ‘도시 다음(the urbane)’을 창출하는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도시는 악화된 도시환경의 품질을 높여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발전전략·성장 패러다임을 경제적 효율성에서 생태적 효율성(ecological efficiency)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에코타운, 탄소제로 도시 등 매우 다양한 생태도시 관련 정책 및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생태도시의 기본적 사고는 근대산업생산시스템이 집약되어 있는 도시로부터 환경위기가 나타났다고 본다면, 이러한 위기의 극복은 가장 비생태적 공간인 도시의 재구성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생태도시 전략은 악화된 도시환경의 품질을 높여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적 녹색혁명 일반을 지칭하는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물리적 공간측면에서는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해 탄소배출량을 축소하기 위해 유기적 교통망 연계와 녹지확보계획 수립, 외부지향형 도시개발을 탈피해 내부지향형 성장관리로 전환하고, 중심지간 네트워크 체계를



프랑스의 파리, 브라질의 꾸리찌바, 영국의 레스터시(위에서부터)

구축해야 하며, 대중교통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확충, 자전거도로정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시도하고, 도시주변 자연 환경과의 조화하고 지형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산지 및 구

릉의 지형을 보존하고, 공원 녹지를 조성하고,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거나 도심 생태하천을 조성하기도 한다. 즉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성 차원에서 오염물질 처리방안(자기순환적 수자원 이용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배출량 저감중심의 대기관리, 절약과 재생중심의 자원이용 및 폐기물관리, 쾌적한 생활유지를 위한 소음 등 환경관리), 오염물질원 관리방안(효율적 에너지 공급, 환경부하를 저감시키는 교통체계, 생태적 산업구조 형성), 자연자원 관리방안(녹지네트워크 구축, 하천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확보)이 있다. 둘째 공간성 차원에서 토지 환경용량에 적절한 토지이용과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심미적 도시공간 조성(어메니티)방안이 있다.

파리시가 녹색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요정책들을 보면, 난방절약, 태양발전소, 공기정화계획, 소음규제계획, 하수구정리계획, 취약지역 공원조성, 토양오염 방지, 기타 숲 공원 정원 묘지관리 등에 정책적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도시는 조건 없이 주어진 자연의 선물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노력하여 보전한 환경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민관의 협력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환경의식과 운동은 도시를 생태도시로 바꾸는데 핵심요소가 된다.

브라질의 환경수도라고 하는 꾸리찌바에서도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이 예술적 경지로 올라갔고, 보행자도로에 폐기 처분된 전차가 탁아소로 재활용되고 수명이 다한 채석장을 재활용공원으로 만들고,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수리해오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생태도시가 되기 위한 자연적인 조건을 살리고, 생태도시로 탈바꿈할 때 도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관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며 에너지를 결집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민관의 의식 전환과 교육을 위하여 영국 레스터시의 에코하우스와 같은 시범교육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에코하우스는 가정에서, 기업에서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주택으로 수 백가지의 생태친화적인 특징이나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어 생태교육과 생태문제인식에 대한 확산의 중심점이 되고 있다.

이달의 논단 _ ②

환경친화적인 창조도시, 꾸리찌바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브라질 남부 빠라나 주의 주도인 꾸리찌바(Curitiba)는 남미의 변방에 위치한 전형적인 제3세계 도시지만, 이 도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보내는 찬사는 매우 화려하다.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 '세계

에서 가장 현명한 도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꾸리찌바는 지구촌에서 가장 완벽한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의 모델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도시를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든 사람들은 3번이나 시장을 역임한 자이메 레르네르와 그의 동료들이다. 이들은 꾸리찌바를 간선교통축을 따라 선형 성장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을 완전히 통합시켜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고질적인 도시교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

70년대 초반부터 약 40여년 가까이 6개 주요 간선교통축-리아베르데라 불리는 1개의 간선교통축은 연방국도를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2008년 12월에 새롭게 개통하였다-을 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건설하고, 지구간 순환버스 노선을 도입했으며, 지선 노선도 완벽하게 구축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이 간선으로부터 지구간, 지선이나 위성도시간 버스를 환승할 수 있는 대형 버스터미널을 간선교통축의 양끝에 건설했고, 각 급행버스 노선을 따라 대략 1.4km~2km마다 중형 터미널을 입지시켜 승객들의 환승 편의를 완벽하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 승객들이 버스를 타기 전에 먼저 요금을 지불하는 원통형정류장을 갖춘 직통급행버스체계를 도입했다. 이 체계의 핵심이 되는 원통형정류장에는 버스 승강대와 동일한 높이의 플랫폼과 장애인들이 승·하차를

쉽게 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가 구비되어 있고, 정류장 규모도 보행밀도를 감안해 2~3개를 붙여 미적 감각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의 승·하차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엔진의 공회전을 방지하여 대기오염을 약 30% 정도 저감시켰으며, 보통의 가로에서 운행하는 완행버스와 비교해 3배나 많은 승객을 수송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70명의 승객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이중굴절버스를 도입했는데, 이 버스는 5개의 옆문을 가지고 있어 이전보다 승·하차 시간을 훨씬 더 줄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땅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간선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시스템은 지하철이나 경전철보다 건설비가 훨씬 저렴하고, 버스를 최우선시하면서도 시스템의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어 운영·관리비도 월등히 적다. 그래서 꾸리찌바의 버스교통 시스템은 지구촌을 대표하는 생태디자인의 모델이자, 저탄소사회를 구현해가는 데 있어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다.

꾸리찌바 시의 교통부문의 혁신은 앞에서 언급한 버스교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유럽의 자전거도시에 비해 그 규모는 작지만 자전거도로망이 거의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고, 세계적인 규모의 보행자천국을 가지고 있다. 일명 "꽃의 거리"라 불리는 이 보행자전용공간은 연장이 1km로 네덜란드의 항구도시 로테르담에 있는 세계 최초의 보행자 전용도로인 라인벤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꾸리찌바 시가 국제사회에서 높은 인지도와 명성을 얻은 것은 위에서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분야가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영역은 바로 다름 아닌 하천관리와 공원·녹지 조성, 멸종위기 상태에 있는 동식물종 복원사업 등과 관련된 분야이다.

1971년에 주민 1인당 불과 0.5m²의 녹지만을 가진 황폐한 도시에 지나지 않았던 꾸리찌바는 오늘날 55m²의 녹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도시 평균과는 비교가 되지도 않



고, 유엔과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수치의 4배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면적으로 선진국의 도시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이다.

70년대 초반에 시장이었던 레르네르는 시 정부가 도시 전역에 나무를 심고 그늘을 마련하여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을 얻는 ‘그늘과 신선한 물’이라는 프로그램을 착수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환경 관리 방식이었다.

이는 하천과 하천변 식생대 모두를 고속도로, 하상도로, 주차장 등을 건설하며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우리나라 도시들과는 아주 정반대이다. 그리고 하천의 직강화와 함께 호안을 시멘트로 피복하면서 둔치를 인공 잔디와 놀이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반환경적인 국내의 하천 행정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꾸리찌바에는 하천이 더 이상 인간만의 땅이 아니라는 자각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다.

꾸리찌바는 하천은 물론이고 주변지역까지도 토지이용법률에 따라 철저히 개발을 규제하면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동시에 홍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 선형공원을 개발하고 유수지 역할을 담당하는 호수를 조성하였다. 그 결과 꾸리찌바에는 브라질의 도시공원 중에 가장 큰 이과수 공원과 바리귀 공원, 사옹 로렌소 공원 등 많

은 공원들이 탄생했다. 또한 버려진 채탄장과 석산개발이 끝난 부지를 대상으로 자연 복원 사업을 벌여 땅구아 공원과 오페라 하우스, 환경개방대학 등을 조성하고, 쓰레기 투기장이었던 곳을 식물원으로 개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 도시에서 배워야 할 것은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열쇠가 되는 것이 환경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 영역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곳에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로스의 등대에 착안해 만든 ‘지혜의 등대’라는 작은 도서관이 있다. 이 도서관은 빈민가에 50개 이상이 세워져 저소득층지역의 경관개선에 아주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리고 꾸리찌바에서는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에 탄약창으로 사용했던 곳이 빼이올연극관으로,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근대건축물이 방송국으로, 건축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즈커상을 수상한 오스카 니마이어의 1960년대 작품이었던 정부부처 건물이 2002년에 미술관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한마디로 도시 전체가 재활용을 모토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꾸리찌바 시의 놀라운 상상력과 창의성을 높게 평가한 닷인지 찰스 랜드리와 같은 학자는 이 도시를 ‘세계적인 창조도시’라 부르고 있다.



타임지가 선정한 장수의 마을, 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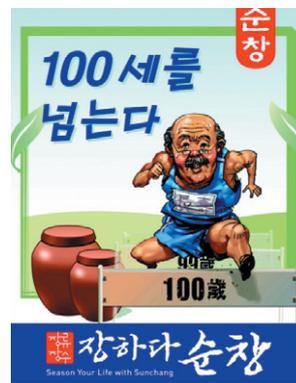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순창군에서 현재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역점시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첫째, 전통장류를 세계의 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총 1500억원을 투자하여 장류밸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실러스균, 황국균 등 우수 미생물을 배양하고 상품화하는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전통장류제조방식에 국제기준의 위생관리시설이 결합된 제2생산단지,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전통절임류 세계화센터 등의 건립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뛰어난 품질의 장류를 생산하고 발효산업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장수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500억을 투자하여 건강장수연구소를 건립하고, 고령친화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연계하여 기능성장수식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은퇴예정자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제3기 인생대학을 운영하는 등 명실상부한 건강장수고을로서의 기반을 갖추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강천산군립공원과 온천이 연계된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투자를 유치하여 2015년까지 66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강천산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천, 콘도 등이 결합된 스파 시설과

강천산 저수지의 수변을 이용한 이쿠아시설, 지역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휴양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입



안녕하세요? 부군수님, 바쁘신데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순창군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보물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우리 군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창조자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우리 군을 대표하는 보물로는 순창고추장, 건강장수고을, 강천산 군립공원을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진상품으로 유명한 순창고추장은 발효에 적합한 독특한 기후조건과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길러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대를 이어 내려온 장인의 손맛이 함께 어우러져 세계인이 즐겨찾는 한국의 대표식품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과 똑같이 농사일을 하시고 즐거운 삶을 보내는 건강장수 지역으로서 2003년에 미국의 타임지에 세계의 장수지역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맑은 계곡물과 아름다운 단풍, 기암괴석 사이로 시원스레 흘러 내리는 폭포가 유명한 강천산군립공원은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울 만큼 절경을 간직하여 전국으로부터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 오는 전국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3개의 농공단지 조성하여 가동되고 있는데,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에 젊은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계 고령친화산업단지와 풍산 제2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으며 발효와 건강장수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기업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3 순창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 첫째, 농업의 고부가가치산업화와 경쟁력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농업은 장류원료 중심의 1차 농산물 생산 위주였는데, 가공산업과 농산물 유통기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증대로 직결시키고 복분자, 블루베리, 꾸지뽕 등 베리류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장류와 장수산업의 수익구조 창출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해 놓은 만큼, 이제부터는 경영에 입각한 시설물운영과 유통망 구축, 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집중해서 순창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셋째,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주환경의 개선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생활기반 조성으로 고령자가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젊은 층과 도시민이 유입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순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농업 농촌자원과 섬진강, 회문산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광산업 육성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휴식과 휴양위주로 바뀌어 가는 국민관광 트렌드에 걸맞는 지역으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건강장수고을 생태휴양 도시 순창의 지역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Q4 마지막으로 순창군을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 순창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청정농산물, 아름다운 산과 강이 어우러 지는 곳으로서, 때문지 않는 경관과 맛있는 먹거리, 볼거리들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강천산 맑은 계곡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고추장마을에서 고추장, 된장 등 전통발효식품과 한정식을 맛보며 장담그기 체험에 참여하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등 다양한 즐거움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훼손되지 않는 천혜의 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섬진강 최상류 장군목 유원지와 마실길 산책로 등이 도시생활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주고 발효식품과 청정농산물로 빚어낸 맛있는 먹거리들이 관광객들께 건강장수라는 선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시 찾고 싶은 순창 정겨운 순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변화하는 순창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산천 생태하천사업과 열린 환경정책의 추진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친환경 녹색도시를 표방하는 오산시의 환경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시책으로는 오산의 젓줄이라 할 수 있는 오산천의 생태하천조성사업과 다양한 환경주체들과 함께하는 열린 환경정책의 추진을 들 수 있다.

먼저 오산시는 오산천의 생태하천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단순히 주변의 환경개선이 아니라, 삶과 휴식의 여유공간, 생태적 자연환경과 교감할 수 있는 안식처로서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산시는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축으로 다양한 친수공간의 조성, 오산천으로 유입되는 실개천 정비를 비롯하여 하천주변 꽃길조성과 자연친화적인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오산천 생태하천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천복원

은 은계동 금오대교에서 탐동 잠수교에 이르는 연장 4.19km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산시를 비롯하여 유역 인근 4개 지자체와 시민단체, 기업, 시민 등이 참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있다(2010. 3. 오산천 수질개선을 위한 MOU 체결 : 환경부, 경기도,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농어촌공사, LH공사, 삼성전자). 오산의 도심 모습을 새롭게 바꿀 생태하천사업은 2010년 사업설계를 시작, 2011년 착공, 그리고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총 57,546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음 열린 환경정책의 추진은 오산시가 관내의 다양한 환경주체들과 협업적 차원에서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오산시는 환경NGO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오산시가 주도하는 생태환경사업과 함께,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친환경 녹색도시 오산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의 경우 『오산의제 21』 실천협의회의 8개 사업(새싹환경교실, 기후변화 대응전략, 찾아가는 녹색환경교실, 푸른경기21 협력사업, 생태관찰 지역조사 및 견학 등), 자연보호 오산시협의회의 5개 사업(환경의식 제고 캠페인, 하천 생

〈표〉 오산천생태복원 주요사업 및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 모	총사업비(백만원)			'10 까지			'11 예산			'12 이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57,546	40,282	17,264	571	400	171	4,873	3,411	1,462	52,102	36,471	15,631
친수환경조성사업	3개소	6,346	4,442	1,904							2,602	1,821	781
유입실개천 정비사업	1개소	2,600	1,820	780							2,600	1,820	780
대호천등 비점오염처리시설	4개소	9,000	6,300	2,700	571	400	171	3,173	2,221	952	9,000	6,300	2,700
원동등 초기우수저류시설	4개소	2,200	1,540	660							2,200	1,540	660
굴동천도심하천복원사업	L=1.63km	20,000	14,000	6,000							20,000	14,000	6,000
하도습지 및 추이대 조성	2개소	800	560	240									
가장천 준설	2,600m	200	140	60				1,700	1,190	510			
하천시설물 정비	3개소	1,400	980	420							700	490	210
오산동 초기우수 저류시설	1개소	15,000	10,500	4,500							15,000	10,500	4,500

〈표〉 오산시의 환경NGO 지원

NGO	추진사업	사업비
『오산의제21』 실천협의회	새싹환경교실, 기후변화 대응전략, 찾아가는 녹색환경교실, 푸른경기21 협력사업, 생태관찰 지역조사 및 견학 등 8개 사업	155,048천원
자연보호 오산시협의회	환경의식 제고 캠페인, 하천생태보전사업, 국토 대청결 운동 등 5개 사업	9,000천원
자연환경운동 오산시협의회	오산천 및 지천 정화활동, 야생조류보호, 동 순회 자연보호활동의 3개 사업	3,000천원

태보전사업, 국토 대청결 운동 등), 자연환경운동 오산시협의회 3개 사업(오산천 및 지천 정화활동, 야생조류보호, 동 순회 자연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미래 오산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에 대하여 인식하고, 친환경도시 건설의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내 오산초등학교외 16개교의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와 협의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생태적 환경공간과 삶의 관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습자료준비 및 강

사는 관내 환경단체에서 맡고, 각 학교에서는 동아리 모임 및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한편, 교육일정에 따라 물향기수목원 등 오산의 대표적 생태환경장소에서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오산시는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정책외에 오산천 생태화사업과 시민단체 연계 및 어린이 환경교육 등을 통하여 생태적 환경을 미래 오산의 브랜드 및 자원으로 인식하는 한편, 시민이 친환경도시 오산의 환경주체로서 역할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통계

생태환경도시 도시통계

박승규(지역발전연구실 수석연구원)

1. 생태환경도시란?

-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 환경보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리우회의 이후, 전세계적으로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이라는 전제 아래, 도시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시개발·도시계획·환경계획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
- 유사한 개념들로 전원도시(garden city), 자족도시(self-sufficient city), 녹색도시(green city), 에코폴리스(ecopolis), 환경보전형 도시, 에코시티(ecocity), 환경보전 시범도시 등이 있음
- 유형별로는 ①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하는 생물다양성 생태도시(녹지 및 쾌적한 하천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 ② 자연순환체계를 확립하는 자연순환성 생태도시(수질·대기·폐기물처리가 환경친화적이고, 무공해에너지를 사용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재사용하는 체계) ③ 지속가능한개발을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생태도시(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도시, 건축 및 교통계획과 인구계획이 확립된 체계) 등으로 구분

2. 생태환경도시의 전제조건

- '발전적이고 점진적인 계획'에 대한 계획과정 필요
 - 처음 세운 계획으로 바라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거나 고정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님
 - 수 차례의 수정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점차 바람직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 도입
- 지역간의 상호의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시를 주변환경에 개방된 생태계로 인지
 - 계획과정은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고양
 - 도시내의 유기적인 생태계 순환과 안전성의 유지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도시와 상호 작용하는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
- 환경오염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주는 다른 분야들의 계획들도 동시에 포괄
 -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인들의 변화와 충분히 연계되어 논의
 - 도시관리 전반의 계획을 포함하여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등의 계획분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
- 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배려
 - 해당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들이 환경적 측면과 함께 고려된 후 부분별 시행방향을 결정

3. 지자체 생태환경도시의 특성

지자체 생태환경도시 현황(2008년 말 기준)

단위 : 개

구분	5만이상	5만이하	총합계
강원도	8	10	18
경기도	30	1	31
경상남도	17	3	20
경상북도	13	10	23
광주	5		5
대구	8		8
대전	5		5
부산	16		16
서울	25		25
울산	5		5
인천	9	1	10
전라남도	14	8	22
전라북도	9	5	14
제주도	2		2
충청남도	14	2	16
충청북도	8	4	12
총합계	188	44	232

지자체 생태환경도시의 지역내총생산 현황(2008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5만이상			5만이하		
	GRDP (총합)	GRDP (평균)	1인당 GRDP (평균)	GRDP (총합)	GRDP (평균)	1인당 GRDP (평균)
강원도	17,447,668	2,180,958	15,591	7,852,720	785,272	22,379
경기도	192,913,136	6,430,438	18,78	701,849	701,849	15,39
경상남도	63,065,763	3,709,751	19,945	1,810,762	603,587	16,999
경상북도	62,720,669	4,824,667	21,319	5,269,587	526,959	15,73
광주	20,830,752	4,166,150	14,973			
대구	32,260,900	4,032,613	15,681			
대전	21,361,183	4,272,237	15,246			
부산	52,097,835	3,256,115	22,92			
서울	227,495,134	9,099,805	30,137			
울산	44,265,129	8,853,026	40,896			
인천	46,042,977	5,115,886	24,744	266,879	266,879	15,717
전라남도	41,654,564	2,975,326	22,998	4,811,783	601,473	15,373
전라북도	25,635,806	2,848,423	16,638	2,214,874	442,975	15,01
제주도						
충청남도	56,431,225	4,030,802	25,733	1,132,180	566,090	16,158
충청북도	26,574,313	3,321,789	22,545	2,806,060	701,515	20,875
총합계	930,797,053	5,004,285	22,261	26,866,696	610,607	17,66

지자체 생태환경도시의 경제인구 현황(2008년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5만이상		5만이하	
	총합	평균	총합	평균
강원도	807,067	100,883	238,143	23,814
경기도	7,992,337	266,411	30,908	30,908
경상남도	2,184,577	128,505	64,652	21,551
경상북도	1,637,769	125,982	213,664	21,366
광주	1,008,046	201,609		
대구	1,830,843	228,855		
대전	1,076,231	215,246		
부산	2,699,829	168,739		
서울	7,750,459	310,018		
울산	814,429	162,886		
인천	1,957,432	217,492	11,574	11,574
전라남도	1,079,485	77,106	191,192	23,899
전라북도	1,175,244	130,583	89,812	17,962
제주도	384,306	192,153		
충청남도	1,310,689	93,621	46,623	23,312
충청북도	904,130	113,016	143,336	35,834
총합계	34,612,873	184,111	1,029,904	23,407

지자체 생태환경도시의 산업 활성화(LQ) 정도(2008년 말 기준)

구분	5만이상		5만이하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강원도	0.566	1.131	0.638	1.103
경기도	1.227	0.930	0.598	1.121
경상남도	1.323	0.897	0.939	0.995
경상북도	1.201	0.935	0.955	1.000
광주	0.847	1.048		
대구	0.821	1.057		
대전	0.597	1.126		
부산	0.818	1.053		
서울	0.452	1.171		
울산	1.827	0.748		
인천	1.028	0.993	0.892	1.022
전라남도	0.900	1.021	0.781	1.050
전라북도	0.930	1.013	0.618	1.098
제주도	0.339	1.148		
충청남도	1.234	0.918	0.643	1.103
충청북도	1.582	0.819	1.189	0.935
총합계	0.998	0.998	0.809	1.045

지자체 생태환경도시의 인프라 활성화 정도(2008년 말 기준)

단위 : %

구분	5만이상		5만이하	
	도로면적 증감	공업면적 증감	도로면적 증감	공업면적 증감
강원도	2,004	5,601	1,743	
경기도	2,369	46,021	6,381	
경상남도	1,75	1,91	1,086	
경상북도	1,6	16,437	0,767	
광주	5,818			
대구	1,587	-1,427		
대전	0,501			
부산	1,288	-7,656		
서울	0,584	-1,723		
울산	2,115	0,758		
인천	0,924	19,938	11,558	
전라남도	1,549	83,764	1,486	1,398
전라북도	3,985	100	1,878	
제주도				
충청남도	1,115	23,836	3,749	
충청북도	1,982		0,215	

지자체 생태환경도시의 공시지가 정도(2008년 말 기준)

단위 : %, 백만원

구분	5만이상		5만이하	
	공시지가	공시지가 증감	공시지가	공시지가 증감
강원도	536.75	14.18	215.5	12.88
경기도	2,748.53	17.23	497	17.77
경상남도	817.53	13.94	139.33	12.38
경상북도	677.85	12.34	136.8	12.36
광주	860.8	49.48		
대구	1,099.38	23.21		
대전	2,403.00	19.21		
부산	850.19	14.2		
서울	3,665.08	29.4		
울산	817.2	0.86		
인천	1,715.00	25.47	208	17.51
전라남도	588.36	39.96	124.88	7.97
전라북도	589.56	10.07	100.4	8.34
제주도	1,630.50	12.76		
충청남도	992.21	15.16	218.5	23.64
충청북도	656.88	12.56	317.75	18.51

지자체 생태환경도시의 인구당 문화·복지시설 현황(2008년 말 기준)

단위 : 개

구분	5만이상		5만이하	
	인구당 문화시설	인구당 복지시설	인구당 문화시설	인구당 복지시설
강원도	0.0002	0.00009	0.0005	0.00012
경기도		0.0001		0.00044
경상남도	0.00008	0.00006	0.00014	0.00016
경상북도	0.00005	0.00007	0.0001	0.00008
광주	0.00017	0.00007		
대구	0.0002	0.00005		
대전	0.00005	0.00005		
부산	0.00004	0.00004		
서울	0.0003	0.00002		
울산	0.00003	0.00004		
인천	0.00005	0.00004		0.00012
전라남도	0.00008	0.00008	0.00011	0.00009
전라북도	0.0002	0.00013	0.00018	0.00012
제주도	0.00022	0.0001		
충청남도	0.00005	0.00009	0.00007	0.00001
충청북도	0.00008	0.00014	0.00018	0.00016



지방자치단체 동향(8월)

하동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경기도 대학유치 이대 포기 · 중앙대 난항(서울신문 8월 12일)

- 경기도는 2006년 10월부터 파주시의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에 추진되던 '이화여대 캠퍼스 조성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고 밝혔음(8.11). 이화여대측은 국방부가 제시한 땅값이 너무 비싸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나와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발표함.
- 또한 하남시의 중앙대 유치 계획도 캠퍼스 건립 규모와 재정 지원 문제를 놓고 대학 측과 이견을 보여 무산될 가능성이 큼.
- 한편 평택시가 추진 중인 성균관대 제3캠퍼스 유치 사업도 예산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임.
- 반면, 고양시(동국대 일산캠퍼스), 의정부(을지대)와 양주(서강대), 동두천(침례신학대) 등의 대학 유치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



▶ 지자체 청사 10% 여전히 '비만' (서울신문 8월 15일)

- 일부 지자체의 과대청사, 호화청사 논란 뒤 관련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아직도 10% 안팎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건물 등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함.
- 광주시와 대전시 등 21개 지자체는 본청 청사 면적을 아직 조정하지 않았고, 부산시·인천시 등 24개 지방의회에서는 아직도 추진 중이거나 계획만 가지고 있음. 또한, 서울 양천구·부산 서구 등 25개 지자체 단체장 집무실도 청사 면적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부산 동구, 대구 달성군, 인천 남동구, 전북 임실군 등 4개 지자체는 청사, 지방의회, 단체장 집무실 세 곳 모두 아직까지 기준보다 넓게 쓰고 있음. 광주시, 대전시, 전북도, 전남도, 경북 포항시 등 9개 지자체는 청사, 지방의회 두 곳의 초과 면적 축소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음.

▶ 7개 지자체, 전통시장 관리재단 설립(서울신문 8월 29일)

- 중소기업청은 최근 실시한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충북 청주 육거리 시장 상권, 서울 마포구 도화동·용강동 상권, 부산 동구 조방앞 상권, 경기 성남 수정로 상권, 강원 동해시 중앙시장 상권, 전북 군산시 대영·신영·평화·영동 상권, 경남 창원시 오동동·창동어 시장 상권 등 7곳이 선정되었다고 밝힘(8.28).
- 해당 지자체들이 관리재단을 구성하여 기반 인프라 구축과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중기청에 제출하면 3년간 총 100억(국비 60%, 지방비 40%)이 지원될 예정.



연구원동정

9월 연구원 소식

슬로건 “ Regional Development in Cooperation”

행사명 2011 지역발전 컨퍼런스

○ 주제: “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간의 연계협력과 갈등관리”

일시 20011년 9월 8일(목)~ 9(금)

장소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 개최형식**
- 주최: 지역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
 - 주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후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시·도 연구원, 지방 유관학회 등

참여국 및 참여자

- 국내: 지역위원회, 지자체, 시·도 연구원, 민간전문가(학회) 등
- 국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국제기구(OECD)
- 국내 발표·토론자: 지자체장, 시·도 연구원장, 지방학회 등 중심

프로그램 □ 총괄

날짜	행사	시간	주요내용
9.7(수)	사전미팅	18:00~20:00	· 국내외 초청인사
9.8(목)	개회식	09:00~10:00	· 개회사, 환영사, 기조강연
	세션1	10:10~12:10	· 1주제: 중앙·지방간 협력과 갈등
	세션2	13:30~15:30	· 2주제: 지자체간의 협력과 상생
	세션3	15:50~17:50	· 3주제: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9.9(금)	학회세션	09:30~12:00	· 주제: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 2011 길림행정학원 인사 초청 및 한중세미나 개최

- 일시: 2011.9.28(수) 10:00~12:00
- 초청: 중국 길림성행정학원 부원장(王志君)외 4명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제: 한국과 중국의 중앙·지방간 관계
- 발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중국 길림성행정학원 각 1인

▣ KRIIA 교육연수 [담당자: 이해선/ 02-3488-7353]

제 3기 주민자치센터 교육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일시: 8.31(수) ~ 9.2(금)
- 참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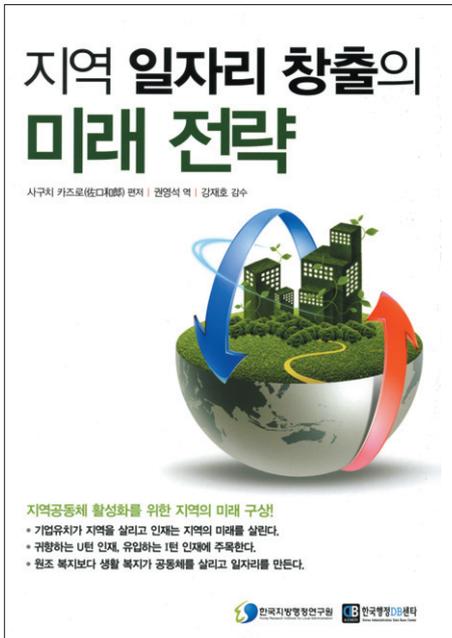
제 4기 기후변화와 녹색공동체 교육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일시: 9.28(수) ~ 30(금)
- 참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역일자리 창출의 미래 전략" 번역서 발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일자리 창출의 미래 전략' 을 발간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와 산업·고용'을 창출한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은 일본의 성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다. 인구 12만 명의 오이타현 분고다카다(豊後高田), 시가현의 나가하마(長浜)에 한 해 동안 250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경이적인 사실' 이 바탕이다. 특히, 이 책은 지역을 살리고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려는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선진사례를 제공하는 본 책자가 지역일자리 창출에 부심하고 있는 한국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현재 연구 중인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의 결과 역시 우리나라의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일자리 부족지역의 고용창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개발 교육프로그램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성과가 지방정책 수립과 적용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개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시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의정연수센터

운영방법

- 대상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 공무원
- 방법 ① 방문교육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대상자와 교육장소, 시기를 정하고 지방자치·의정연수센터 교수진이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 ② 집합교육 : 교육 신청하여 연구원에 방문하셔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과정

- 방문교육

개요	세부내용		
기간	1일~2일		
교육 과정	지방재정력 분야	지방재정관리 혁신	고령화사회와 지방재정 운영전략
			성과중심 예산제도 운용 및 활용방안
			지방재정 위기와 대응방안
			광특회계 운영과 지방의 대응
	지방경쟁력 분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공공감사체계의 이해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 및 자체감사
			컴퓨터활용 감사기법
			감사계획 수립방법 및 감사기법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성과관리 개요와 자체평가의 이해
			성과평가 지표개발의 원칙 및 방법
			지표개발 실습
			지표별 가중치 설정과 평가기법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제고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의 이해		
	지방정부의 생산성 제고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역량		
지역경제발전 분야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운영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이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설립과 육성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운영과 지속방안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	지역발전의 현재 및 미래환경의 이해	
		광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지역개발 자원	
		창조 지역발전의 이해, 연계 협력 및 광역화	
교수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대학교수 및 중앙·지방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교육비	1일과정 : 1인당 10만원 / 2일과정 : 1인당 15만원		

교육과정

• 집합 교육

개요 기간	세부내용			
교육 과정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1일차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 사업예산제도 : 사업예산 운용요령 · 성과예산 편성방법, 성과관리	
		2일차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과 과제 복식부기회계제도 : 발생주의 이해, 재무제표, 복식부기 재무정보 활용	
		3일차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편성방법 재정분석과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광역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지방의 대응 최근 지방재정 변화 동향	
		주민자치센터	1일차	주민자치의 이념과 철학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방법 ·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주민자치위원의 바람직한 역할
			2일차	마을행사의 기획과 운영 · 우수사례 소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3일차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례 소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도입과 활용방안
		기후변화와 녹색공동체	1일차	기후변화가 주는 파급효과 : 자원고갈과 에너지 기후변화와 생존위기 : 대응과 재난안전 녹색성장의 내용과 정책방향
			2일차	탄소배출 저감사례와 적응방안 : 교통 및 도시계획 지역에너지 자립사례와 적응방안 : 주거 및 산업 지역녹색성장 및 에너지 실천계획
			3일차	대안모색 I : 생활 속의 녹색성장 실천사례와 적응방안 대안모색 II : 지역녹색공동체 형성 방안 지역녹색성장 · 에너지 기본구상
	지역공공디자인		1일차	지역공공디자인의 이해 지역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커뮤니티 디자인수법 적용 방안
			2일차	우수 지역공공디자인 사례 견학
			3일차	국내 · 해외 우수사례 소개(공공시설물 디자인, 옥외광고물 정비방안) 지역공공디자인 개선방안
	교수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대학교수 및 중앙 · 지방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교육비	3일과정 : 1인당 19만원 (* 주민자치위원 2일과정 : 1인당 15만원)		

※ 교육이수 실적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공무원교육훈련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277호)에 따라 '상시학습 수료' 로 인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Newsletter 소식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메일 : yjtak@krila.re.kr

- 전 화 : 02-3488-7361